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요구 확산

전국 권역별 대학 학생대표 '35% 의무채용 법제화' 서명운동 등 펼치기로

전주시에서 처음 제기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혁신도시 지자체와 전북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지방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장실에서 유영현 부산대 총학생회장과 이동준 울산대 총학생회장, 한승진 전북대 총학생회장, 이주현 동신대 총학생회장, 신대환 창원대 총학생회장, 문건희 충남대 부총학생회장, 이주용 한국기술교육대 총학생회장, 조일기 강원대 부총학생회장 등 전국 권역별 대학교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과 청년취업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의 눈으로 봐야 지역이 보이고, 청년의 눈으로 봐야 청년이 보인다"면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지역 젊은이들이 숙명처럼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현재 국가의 틀을 만든 기성세대들은 틀을 바꿀 수 없지만 그 틀에서 자유롭고 가장 절실한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전국 혁신도시의 현황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현황,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권역별 대학교 학생 대표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서명운동과 성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난 1일 전주시청 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유영현 부산대 총학생회장과 이동준 울산대 총학생회장, 한승진 전북대 총학생회장, 동신대 총학생회장 등 전국 권역별 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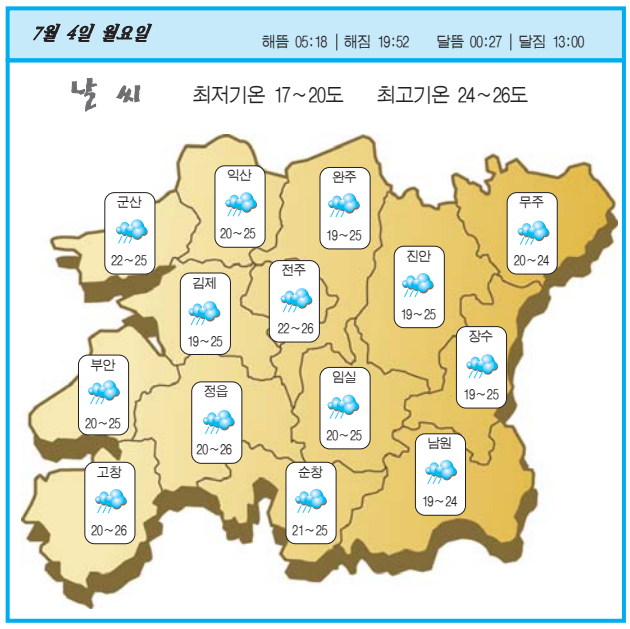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현재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입법발의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오는 5일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혁신도시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들과 합동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 등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7일 전북지역 대학생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 부총장 간담회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절박함과 대학교수단이 느끼는 출신대학 학생들의 고충,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주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단체장들과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법제화 추진 결의문을 채택, 이를 청와대와 국토부장관, 3당 대표 및 원내대표, 지역발전위원장 등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혁신도시 14.6% 등 평균 13.3%에 머물고 있다.

/김영재기자



전주 팔복예술공장 추진단, 사업배경 · 방안 설명

지역 예술인 단체 · 주민 등 초청 '공유테이블' 첫 개최

전주시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팔복예술공장을 주민들과 공단근로자들이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예술을 만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

시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추진단(총괄기획 황순우)은 1일 전주제1산업단지 내 (구)쏘렉스공장에서 지역예술인·단체, 산단 기업인, 지역민 등을 초청해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기위한 '팔복예술공장 첫 번째 공유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순우 팔복문화예술공장 총괄기획자는 "이 사업은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예술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소외지역인 팔복동 산단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기본컨셉을 '일상의 덤'(The Fringe benefits of Life)으로 정하고, 주민과 공단 근로자 등 시민들이 비일상적인 장소에서의 예술 경험을 통해 일상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공유테이블에서는 조광호 컨설턴트 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주제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안, 국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그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등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와 예술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창의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문화적 공동장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순우 사업 총괄기획자는 "이번 공유테이블은 팔복예술공장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적 상상력을 구현하고, 실패가 예상되는 예술적 작업들이 오히려 환영받고 사랑받는 팔복만의 오리지널 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5억원을 확보해 총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다 2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구)쏘렉스공장은 2017년 10월 이면 전주를 대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 해외 기술연수 진행

중국에서 오늘부터~8일까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설경원)이 해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산업체에서 현장교육을 진행, 관련 학과 학생들과 지역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전북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우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까지 심어주기 위해 해외 기술연수를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중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육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폭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태양에너지 연구센터, 쑤저우 공원원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 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와 미래산업형 선진기업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우수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

직접 해외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LINC사업단이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신재생에너지 교육인증제'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은 학생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설경원 LINC사업단장은 "글로벌 현장의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해외현장 기술교육은 학생들의 모험심을 북돋워 보다 구체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국내외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최우수'

전북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평가로 전북대는 기존 15억 원의 사업비에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단이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 노력과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호남권 컨소시엄 대학 및 도 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긴밀히 연계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지역의 의견과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과 일반사업 유형으로 나뉘 전국 10개 권역 지방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들이 동반 성장하고, 지역에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민형 기자